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와 가야의 ‘港市’

A Theoretical Review of Port City Theory and Port Markets in Gaya

정선운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II. ‘港市國家論’에 대한 국내의 연구사

III.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

IV. 고고학적 분석을 통한 삼국시대 가야의 항시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가야사 및 삼국시대 해양교류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항시(港市)’ 개념이 이론적 정의보다 사례 적용이 앞서 확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는 입지나 일부 외래계 유물의 존재만으로 항시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기항지-교역장-항시-항시국가로 이어지는 단계 설정과 항시 내부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에 본고는 동남아시아·인도양·일본열도 사례에서 축적된 ‘항시국가론(港市國家論)’을 검토하여 항시의 개념·구조·메커니즘을 재정리했다. 그 핵심 요소는 ①해상·수운·내륙이 결합되는 입지, ②외래계 요소의 집중, ③교역을 주도하는 배후 정치체, ④교역장·항시와 연동된 배후지를 포함한 항시 네트워크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가야권의古墓해만·거제·사천을 비교한 결과,古墓해만은 중심지-외항-배후지가 체계적으로 결합되고 외래계 요소가 집적되어 항시국가의 구조와 가장 부합했다. 거제도 내 아주동유적은 다양한 외래계 요소가 확인되나 정치적 중심성은 미약하여 ‘교역장’ 단계로 파악된다. 사천 일대의 유적은 제한적 교역 활동은 존재하나 외래계 요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항시로 이해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港市國家論’의 개념을 검토하여, 이론과 물질문화를 결합한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항시국가론’을 통한 교역 연구의 개념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항진, 기항지, 교역장, 항시, 항시국가론

I . 머리말

2020년을 전후하여 가야권을 중심으로 ‘港市 또는 港市國家’를 근거로 하는 연구 사례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역적으로는 마한권, 시대적으로는 원삼국시대, 분야적으로는 문헌사까지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가야의 ‘港市’는 古김해만권, 창원(마산) 현동유적, 창원(진해) 석동유적이 제시되었으며, 이 권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외래계 요소는 항시임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거제 아주동유적·창녕 계성리유적, 광양 용강리 석정유적, 여수 둔전유적·죽림리 차동유적도 ‘港市’ 개념 아래의 교역장이다(정선운 2022).

이러한 연구 사례는 가야의 ‘港市’와 함께 교역·교류사적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港市’라는 용어의 분석·활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港市’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내재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물질문화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바다 또는 하천에 접한 입지, 단편적인 고고자료나 문헌사적 관점에 근거하여 ‘港市’로 정의하는 경향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港市國家論’에 대한 국내의 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港市’에 대한 일본의 연구사를 중심으로 해외의 사례를 검토해보겠다. 이를 통해 정리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삼국시대 김해·거제·사천 등 가야권 내 고고학적 양상을 정리하고, 비교를 통한 이론과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토대로 ‘港市’의 정의를 시도해보자 한다.

II . ‘港市國家論’에 대한 국내의 연구사

1. 연구사 검토(국내)

국내에서 ‘港市’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는 권오영이며, 동남아시아의 諸 국가를 ‘港市’의 개념을 통해 이해했다(2017, 2019, 2023). ‘港市國家’는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자율성이 보장된 새로운 사회집단이 발생하고, 상호 의존성을 통해 교역에 기반한 상호 협동적인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판단

했다. 내부의 정치적 변동과 대외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래품, 조선술, 지형의 변화를 통해 변동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중심지가 변화한다고 보았다. 향시의 발전단계를 ‘교역장-향시-향시국가’로 설정하고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개방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희(2018, 2021)는 권오영의 견해를 수용하며 ‘港市’의 개념을 통해 해남반도(지미) 일대나 포상팔국을 향시의 연맹 관계로 이해하며, 변화 주체를 파악했다.

정선운(2022, 2023ab, 2024, 2025)은 권오영의 견해를 수용함과 동시에 향시의 발전단계를 ‘기향지-교역장-향시-향시국가’로 세분하고, 고고학적 분석을 위한 향시의 개념과 구조를 정의했다. 이를 통해 古김해만, 창녕, 거제, 호남 동부 일대를 대상으로 외래계 요소의 분포에 따라 향시의 시기적 변천 양상을 파악했다. 향시의 존재를 근거로 남해안의 연안항로를 제시했으며, 이전 연구성과를 근거로 거제도 내 諸유적을 종합·집성하여 거제도의 단계 발전을 모색하고, ‘港市國家論’을 통해 도서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권옥택(2022)은 해남반도 일대의 유적을 검토하고, 외래계 요소를 집성했으며, 향시국가론을 통해 신미국의 성격을 파악했다.

안홍좌(2023)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향시의 조건 중 특히 자율성과 독립성에 주목하고 『일본서기』의 卓淳國에 비정하며 성격을 파악했다. 특히 탁순국을 개별 향시가 아닌 인근 지역 간 결합된 향시국가임을 주장하며, 창원 內 생산·생활유적과 산성을 근거로 3개의 군으로 구분했다.

윤영석(2025)은 주조·관상철부에 주목하여 사천 늑도와 창원 古대산만 사이의 철부교역망을 향시와 교역장의 연계 형태로 이해했다. 지리적 이점과 위세품 교역을 중심으로 한 두 지역을 교역장과 기향지가 연계된 향시의 시원적 형태로 파악했다.

지역사 관점으로 확대해보면, 해남 군곡리유적을 ‘해양 거점도시’로서 이해하고, ‘향시’로 정의하거나(강귀형 2023)와 사천의 지역사를 규명하기 위해 고고자료로서 ‘향시’를 규명한 학술대회(오재진 2022)가 있다.

그중 최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25)의 학술대회 『가야 향시와 일본 열도-창원 석동유적을 중심으로-』가 주목된다. 최경규(2025)는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개념과 틀을 보충하여 금관가야의 외향으로서 창원 석동유적을 이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칼 폴라니(Karl Polanyi 1963)의 개념에 빗대어 단순한 경제적 시장이 아닌 정치·의례·사회 규범이 결합된 ‘교역의 제도적 장’으로 정치권력 혹은 공동체

의 규범에 의해 통제되어 교역의 관리·이익이 단일 세력에 집중되지 않고, 의례적·분배적 방식으로 사회 내 순환되는 구조로 제시했다. 또한 울터스의 만다라형 정치체 모형(O. W. Wolters 1999)를 근거로 금관가야와 석동유적의 관계에 대해 모식화를 시도했으며, 금관가야 중심권력에 종속되면서도 자율성을 보유한 교역거점으로 서 창원 석동유적 및 주변 항시를 이해했다.

더하여 도시지리학적 관점에서 항시를 분석한 견해(정문수 외 2014)를 살펴보면 ‘모든 항구도시가 해항도시’일 수 없으며 특정한 권역과 권역 간 매개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에 대해서만 해항도시로 인정했다.¹⁾

2.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최근 가야사 및 삼국시대 해양교류 연구에서 ‘항시(港市)’와 ‘항시국가(港市國家)’ 개념이 급격히 확산되었으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국내 연구는 대체로 ‘항시’라는 용어 자체의 적용과 사례 제시에 집중한 나머지, 그 개념이 본래 지니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결합된 복합 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부족했다. 즉, 해안·하구라는 지리적 입지나 단편적 외래유물의 존재만으로 항시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 연구는 물질문화를 통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항지·교역장·항시·항시국가라는 단계적 구분 없이 포괄적인 항시로 해석하는 문제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동남아·인도양 사례에서 확립된 항시국가론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항시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국내 연구에서 제기된 개념의 단순 적용, 입지 중심 정의 등을 넘어 먼저 동남아시아, 인도양, 일본열도 연구에서 정립된 항시·항시국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틀을 가야권에 적용하여 항시 발전단계의 차이를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1) 이는 필자가 제시한 ‘기항지(일반 항구도시)-교역장(이상 해항도시)-항시-항시국가’의 항시의 발전단계에서 기항지와 교역장, 항시를 구분한 것과 상통한다(정선운 2022, 2023b).

Ⅲ.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

1.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

필자는 이전 연구(정선운 2022, 2023a)에서 ‘항시의 정의와 구조’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대부분 국내 연구 사례에 집중되어 ‘港市’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港市國家論’에 대한 이론적 틀을 설계 및 정리해보고자 한다.

Karl Polanyi(1963: 30~35)는 고대사회의 항시(덜문,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무역항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항시를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라 행정적 방식(central administration)에 의해 운영되는 교역 제도로 보았다. 항시는 정가제(담합, price-fixing)와 관습화된 규칙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적대 관계에 있는 집단조차도 비교적 안전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보안과 중립성이 보장된 보호공간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그러한 중립성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항시는 정치권력(중앙, 공동체)의 적극적 개입과 조정에 의해 유지되며, 이를 통해 교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동체 내부에서 재분배되는 구조를 가진다. 정치권력(중앙, 공동체)이 교역을 관리·조절하며, 그 이익은 사회 내 순환되는 구조를 가진다. 단순항만의 입지를 가지는 것이 아닌 수운과 해상, 내륙 교역이 연결되는 유통 결절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폴라니에게 항시는 정치·의례·사회규범이 결합된 하나의 장(field)이며, 수운과 육상의 유통 결절점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生田滋(1966: 2, 22~25)는 해상 무역권을 형성하고 있던 항구와 그 부속도시를 함께 ‘港市’로 명명했다. 상인이 왕래하며 교역이 이루어지고, 부가 축적되며 그 부가 다시 내륙과의 교역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역 중심 도시를 항시로 정의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전파되는 거점으로서의 항시를 강조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항시를 단순한 경제 행위의 무대로 한정하지 않고, 문화·종교 교류의 장으로 파악하며, 나아가 항시가 내륙 국가의 단순한 ‘창구’에 머무는 경우와 항시 자체가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항시국가’로 발전하는 경우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항시와 항시국가의 발전단계가 개념적으로 설정되었다.

大林太良(1987: 87~98)는 生田滋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항시를 무역항의 기능을 기반으로 성립한 도시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도시 개념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항시국가의 본질적 경제구조는 외부 교역에 대한 의존성을 통해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항시국가는 국제 정세와 해상 교역망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번영과 쇠퇴를 반복하는데, 이는 항시국가가 내부 생산 기반보다 외부 교역의 변화에 더 민감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항시는 대외 개방성과 동시에 교역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도시 형태로 보았다.

J. Kathiritamby-Wells, · Villier, John Villiers(1990: 7~31)은 항시를 동남아시아 고유의 국가 형성 구조로 규정했다. 항시는 단순히 하구·해안에 입지한 교역장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기능을 통합한 복합 도시체이며, 교역·정치·관계를 통해 내륙과 외부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도시(gateway city)’로 정의했다. 중심지와 항구가 분리된 옥에오 같은 국가에서는 정치적 결정은 중심지에서, 경제적 기능은 항구에서 수행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항시가 운용되는 시스템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갖추지 않고도 지배집단이 물자를 재분배하는 정치·경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지역 네트워크와 항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장소에 위치하여 외래계 요소를 통해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화·경제의 중개자(cultural broker)’로 기능했다고 정의했다.

O. W. Wolters(1999: 58~88)는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베트남, 메콩강 하구 등의 사례를 통해 항시를 지역 네트워크의 교환 중심지(exchange hub)로 파악했다. 항시는 단순한 교역 장소가 아니라, 정치·교역·문화의 흐름이 중첩되는 공간이다. 내륙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항시는 중세 동남아의 분권적 만다라 정치체(mandala polity)²⁾를 구성하는 핵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으며, 바간, 아유타야, 참파, 앙코르, 스리비자야 등은 이러한 항시·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광역 정치체의 전형으로 보았다. 울터스의 논의는 항시를 단독 도시가 아니라, 다층적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갖는 교차점(node)로 이해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石井米雄 외(1992: 87~88)는 아유타를 사례로 하여, ‘항시국가’에 대해 항만을 기반으로 한 상업과 정치권력이 결합된 국가로 정의했다. 아유타는 동·서 교역의 중계항으로 기능하는 국제항구이면서, 동시에 왕권과 행정, 의례가 집중되는 정치 중심지로서 항시국가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한다. 특히 그는 아유타 중심지 내·외부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중국인 거류지와 같은 공간적 분절에 주목했다. 즉, 항시는 단일한

2) 중세 동남아시아의 분권화된 정치 체제를 의미(바간, 아유타, 참파, 앙코르, 스리비자야 등)한다.

통합체라기보다, 상인공동체·재지 지배층·외래 집단 등이 서로 다른 규범과 이해 관계를 유지한 채 병존하는 다층적 공간으로 외항을 포함한 복합적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정의할 수 있다.

坂井 隆(2002: 157~179), 菊池誠一·坂井 隆 外(2021)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바텐(Banten)과 말라카 제도 등의 사례를 통해 항시의 구조를 한층 세밀하게 분석했다. 항시를 항시는 반드시 네트워크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며, 단독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장거리·이문화 간 해상무역을 전제로 한 도시로 이해했다. 분석에서 항시의 공간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중심지(수도)와 외항(항시)의 관계, 다른 하나는 항시 내부에서의 정치 영역과 무역 영역의 병존구조이다. 중요한 점은 이 병존구조가 정치권력이 일방적으로 상업을 지배하는 위계구조라기보다, 항시의 교역을 통한 부의 생산 기능이 역으로 정치권력의 존립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즉, 정치권력 또한 상업 기능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며, 상인공동체가 일정 수준의 독자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호 의존·협력·긴장이 교차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家島彦一(2006: 74~106, 280~360)는 인도-아라비아 교역과 스리랑카, 인도양 연안의 사례들을 통해 항시의 기본 기능에 대해 해외(외래계) 물산을 집산·분배하는 유통 기능으로 규정했다. 그는 항시가 단독으로 자립하기는 어렵고, 대개 내륙의 정치적 영향 아래 존재하면서 해상과 육지 사이의 중계·중간자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항시와 그 주변 항구들이 확대·통합되면 통상국가·연안국가 형태의 '항시국가'로 발전하며, 이때 항시국가는 항시뿐 아니라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포괄하는 해륙 통합형 통상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계무역과 관세, 재수출 이익 등 무역·중계 이익이 국가 재정의 핵심을 이루며, 항시국가의 정치경제 구조를 규정하는 점이 특징이다.

川口洋平·村尾進(2012: 243)는 항시에 대해 해역아시아라는 광역의 공간 내 인간·상품·화폐·정보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이자 장소로 정의했다.

즉, 항시(港市)는 단순히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를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바다와 내륙을 매개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중첩된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다와 내륙 유통망을 연결하여 중계·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교역'의 거점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의례적 장치에 의해 무역 안전을 보장하며 문화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해양 교역 중심 도시인 것이다.

더하여 塚本浩司(日高慎 外 2024: 234~236)는 ‘港津’이라는 개념을 도입·설명했다.³⁾ ‘항진’이란 고훈시대 해상 교통에서 선박이 정기적으로 머물며 휴식·보급·피항을 위해 이용하던 자연 항만 또는 하구·내만의 정박지를 의미한다. 준구조선과 같은 고대 선박은 흘수가 얇고 적재 능력이 제한되어 매일 육지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항진은 항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중간 거점으로 기능했다. 항진은 단순한 정박지가 아니라, 물자보급·숙박·창고·시장(市) 등의 기능을 갖춘 교역·재분배의 중심지였으며, 해상 교역을 조정하는 지배자 또는 ‘津長’이 존재하는 정치·경제 복합 공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내만(内灣), 석호(潟湖), 하구 등 파랑이 약하고 배가 닿기 쉬운 지형에 형성되었고, 멀리서 인지하기 쉬운 산·岬·대형 고분 등 시인성이 높은 지형 요소와 결합하여 장거리 항해의 안전을 보장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즉, ‘항시’와 비교하자면, 항진은 고대 해상 교통에서 선박이 정박하여 휴식·보급·피항을 수행하던 기능적·지리적 정착지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중간 거점이다. 내만·하구·潟湖 등 자연 지형에 의존하는 지점으로 정선운(2022)의 정의에 따르면 ‘기항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항시는 이러한 항진이 교역의 확대와 인구·기술의 집적을 통해 성장한 정치·경제·사회 기능이 복합된 항구도시 거점을 뜻한다. 항시는 단순한 정박지를 넘어, 상인·기술자·이주민 등 다양한 집단이 모여 이루는 개방적·다문화적 교역 공간이며, 외래 물자의 집적과 재분배, 조세·관세 운영, 외교·의례 기능까지 수행하는 거점이다. 요컨대, 항진이 항로를 유지하기 위한 ‘정박의 장소’라면, 항시는 교역과 정치적 권력이 결합하여 형성된 ‘항시국가의 구조’로, 규모·기능·사회적 복잡성에서 ‘항시’는 ‘항진’보다 더 고도화된 단계라 할 수 있다.

2. ‘港市’의 메커니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항시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상호·결합하여 작동하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공간적 구조의 측면에서 항시는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Karl Polanyi와 家島彦一가 강조하듯, 항시는 항만 자체의 입지에 그치지 않고, 배후지의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생산력과 수운·육상 교통망을 포함한 유통 결절점(logistical node)으로 기능한다. 生田滋와 大林太良의 정의에서 보이듯, 항시는 바다를 통한 교역에서 축적된 부가 다시 내륙과의 교역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가지며, 이때 항시는 단순히 통과하는 지점이 아니라 재분배 거점으로 작동한다.

둘째, 항시는 중립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보호공간이지만, 이는 중심 정치체(정치권력)로부터의 탈정치화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Karl Polanyi가 지적한 것처럼 항시는 정치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행정적 조정을 통해 유지되는 제도적 공간이다. 石井米雄·辛島昇·和田久徳나 坂井隆의 견해와 같이 중심지와 항시 등의 관계 설정은 각 항시국가의 정치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항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장(場)을 형성한다.

셋째, 항시는 중계무역 등에 기반한 재정 구조를 가진다. 家島彦一의 사례에서 항시는 해외 물류의 집산·분배를 담당하면서 통상국가·연안국가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며, 항시국가의 존립은 이러한 해상교역의 흐름에 구조적으로 의존한다. 大林太良가 지적한 항시국가의 취약성, 즉 번영과 쇠퇴의 급격한 사이클은 바로 이러한 외부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 Wolters가 보여준 동남아 항시의 사례들 역시, 특정 항로·품목·동맹의 변동에 따라 항시의 위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넷째, 사회·문화적으로 항시는 다양한 외래계 요소가 교차하는 접점이다. 生田滋와 石井米雄·辛島昇·和田久徳가 강조했다듯, 이슬람 상인을 비롯한 다양한 외래계 집단은 항시에 거류지를 형성하며, 종교·관습·언어·기술 등이 집산·전파되는 거점이 된다. 이러한 다층적 문화교섭의 장으로서의 항시는, 단순한 교역거점보다 더 나아가 해양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물질문화가 혼합되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항해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례와 신앙은 항시 공간을 일종의 의례적 장소로 만들며, 정치·경제적 기능과 더불어 상징·의례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성역화는 항시가 교역의 위험을 완충하고, 다문화 집단의 신뢰를 조성하며,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례-정치-경제 복합체로 기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네트워크 메커니즘 측면에서 항시는 결코 고립된 도시가 아니라, 인접 항시와 배후지, 광역 해상 루트에 의해 구성되는 광역적인 해양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점이다. 坂井隆가 강조한 것처럼 항시는 단독으로 성립하지 않고 항시-배후지-

외항-다른 항시와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家島彦一와 O. W. Wolters의 논의는 항시를 해역 단위(maritime region) 또는 만다라형 정치체 안에서 재배치하며, 항시국가는 복수 항시의 통합과 내륙자원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항시는 단순한 해양 거점도시가 아니라, 해상·수운·내륙 교역망의 결절점에 형성되는 게이트웨이(Gate way, Kathiritamby-WellsJ. · Villier, John, des. 1990)다. 외래계 요소의 집적과 재분배를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중층적으로 중첩된 교역·행정의 장으로 작동한다(菊池誠一·坂井隆 外 2021). 항시는 안전·중립이 보장된 교역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규범이 관습화된 행정적 조정 체계(Karl Polanyi 1963) 아래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중심 정치체(정치권력)는 교역의 순환 구조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자로 기능한다. 이어 항시는 해양교역을 담당하는 외래 상인과 내륙자원을 보유한 재지 집단이 만나 물질문화가 교차되는 공간으로서, 상업적 부의 축적이 다시 내륙으로 재유입되어 도시와 배후권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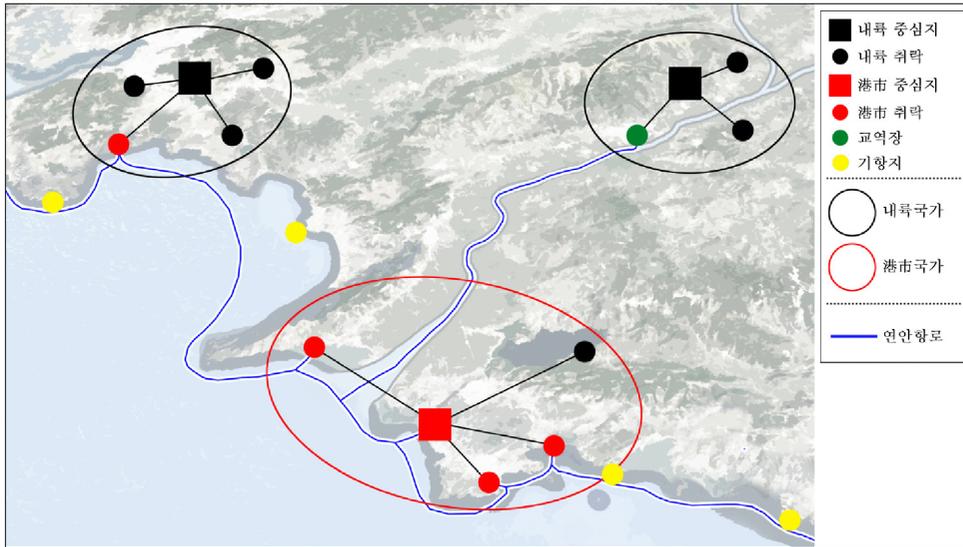
이러한 항시의 성립과 성장 과정에서 도시 내부는 종종 상인 공동체·재지 지배층·외래 집단이 서로 다른 규범을 유지한 채 병존하는 수평적 분절 구조를 보이며, 정치 영역과 상업 영역이 분리되지만 동시에 상호 의존·협력·긴장의 구조가 작동한다. 항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변 항구·내륙 거점과 네트워크로 묶인 교역 허브로서 기능하며, 이 네트워크 속에서 국제적 이동성을 갖춘 인적·물적·정보 흐름을 집중적으로 조절하는 해역 장치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항시가 확대·통합되면서 그 외항·배후항만·내륙 생산지와 결합하여 해륙 통합형 중계무역국가의 구조, 항시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3. ‘港市’의 구조와 모델

앞 절에서 정리한 ‘항시’의 개념과 메커니즘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시는 ‘교역의 제도화된 공간’으로, 배후지와 결합된 교역의 결절점이다. 이는 복수의 항시 간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된 교역 네트워크의 결절점인 것이다(菊池誠一·坂井隆 外 2021).

자연항만·하구·내만·안전 등 기반(지리적 거점)의 ‘기항지(항진)’에서 재지·



[도면 1] 항시국가 모식도(정선운 2023 수정)

외래 정치체 사이 교역을 통한 외래계 요소가 중첩되며, ‘교역장’으로 발전한다. 이 공간에서 정치체는 교역의 안전이 보장되고, 교역·정치·의례·문화 교섭이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상인집단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해역 네트워크의 교역 중심지인 ‘항시’로 성장한다. 최종적으로 해양 교역 중심인 항시의 교역 집적을 통해 배후지를 통합하고, 때로는 독자적 정치 중심지로 확대되며 해륙 통합적 구조를 갖춘 통합형 중계무역국가인 ‘항시국가’로 확장되는 과정을 아래의 모식도와 같은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IV. 고고학적 분석을 통한 삼국시대 가야의 항시

1. 대상 지역 검토

앞 장에서 검토한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가야의 ‘港市’를 정의해보고자 한다. 그 대상은 가야의 港市로 언급된 바 있는 김해와 거제, 사천으로, 양 지역의 삼국시대 양상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港市’로 볼 수 있는 속성을 비교·정리하여 경관적 모델을 구성해보겠다.

먼저 古김해만·거제·사천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 근거는 다음과 같다. 언급한 세 지역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항시’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권오영 2019; 오재진 2022; 정선운 2022, 2023ab, 2025; 최경규 2025). 하지만 각 지역 내 외래계 요소의 절대적인 수량 차이나 출토된 유적의 빈도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항시 발전단계를 비교·검토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가야권에 분포하고 있는 왜계고분 중 단독분인 김해 율하 B-1호, 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을 ‘항시국가론’에 기반하여 성격을 추론해보겠다.

1) 古김해만

現 김해평야가 위치한 김해 일대는 과거 해수면의 수위를 고려할 때(황상일 외 2009) 古김해만이 형성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만, 古김해만은 완전한 바다가 아니라, 간조와 만조의 영향을 받는 간석지일 것이며, 만조에는 해수를 이용할 수 있고 간조에는 현재의 순천만이나 사천만과 같이 갯강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 갯강사례(左 서천 할미섬 부근, 필자촬영)과 김해 대산평야 현재 지형(右 권혁재 2003)

古김해만을 둘러싸고 성장한 금관가야는 중심지(봉황토성-대성동고분군-부원동 유적)과 주변(김해 관동리·신문리·율하·여래리, 진해 용원·석동, 부산 복천동·동래패총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중심지에서는 중국 동북·왜를 비롯한 다양한 외래계 요소가 집중되는 반면, 주변부에서는 일부 왜계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소수의 외래계 요소가 분포하고 있어 항시국가 네트워크로서의 ‘중심지-주변’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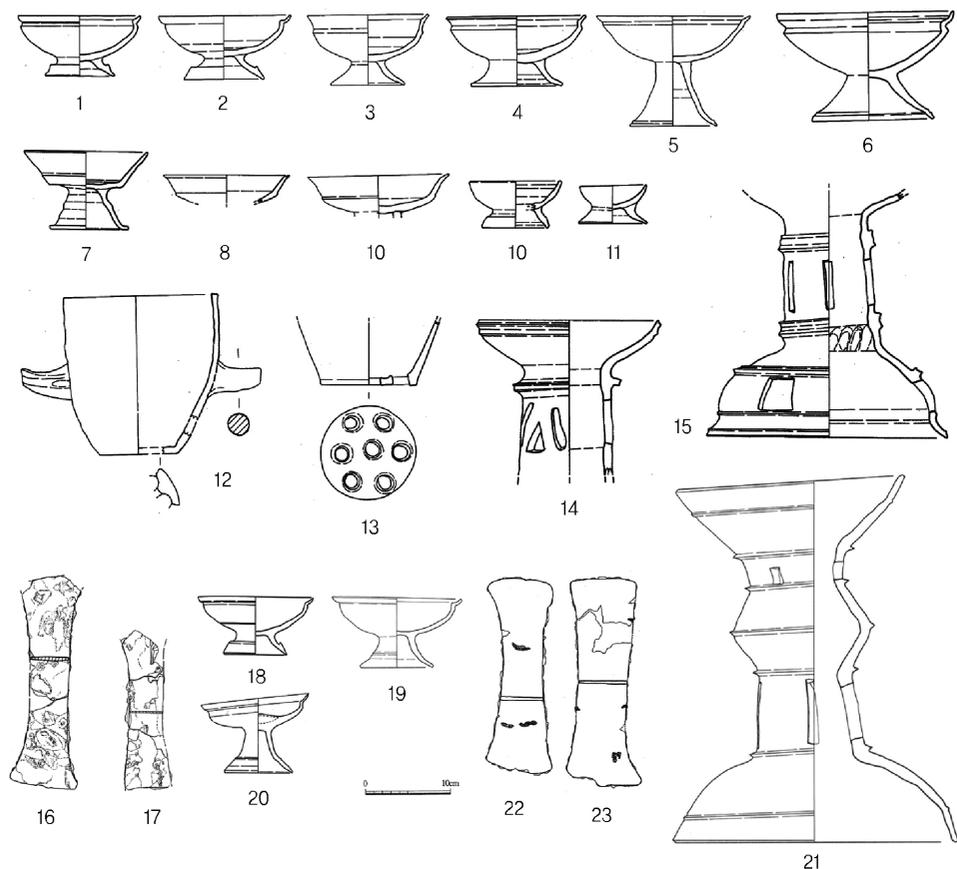
중심지의 생활역인 봉황토성에서는 최근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패각과 점토, 모래, 목탄 등을 이용한 성토, 성토를 위한 여러 공법(토제, 목주, 수평성토, 교호성토 등)이 확인되었다. 그 상층으로 대형의 건물지 여러기가 밀집되어 있는 양상과 4세기 중~5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대지조성층 하층으로 칠기 및 목기가 다수 출토되어 이전 시기부터 공간을 점유하여 중심지로 이용되었음이 밝혀졌다(김수민 2025).

더하여 봉황토성과 해반천을 잇는 경계의 가야인 생활체험촌유적에서는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재와 노(동양문화연구원 2014)가 출토되어 선박의 접안을 예측할 수 있으며, 부원동유적(패총)에서는 주거지가 확인되어 생활권역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가야인 생활체험촌·부원동유적 土師器系土器가 출토되었는데, 기형·제작기법 등을 참고할 때 반입·모방품이 혼재하여 왜인의 거주와 영향을 상정할 수 있다(정선운 2022).

중심지의 분묘군인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더욱 다양한 외래계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대성동 29호 출토 동북, 88호 출토 진식 대장식구, 91호 출토 금동제운주나 장식운주·마령·동세 등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고, 대성동 38호 출토 통형동기, 13호 출토 파형동기, 88호 출토 패제운주·파형동기·통형동기 등은 일본열도에서 유



[도면 3] 김해 대성동고분군 출토 외래계 요소
(1. 대성동 13호, 2. 대성동 91호, 3. 대성동 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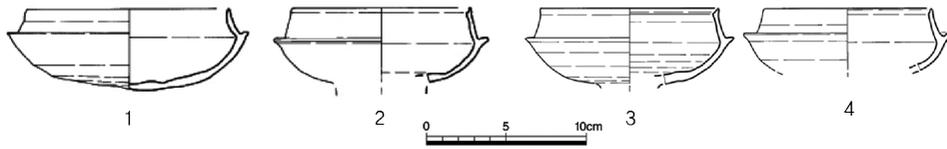
[도면 4] 진해(창원) 용원유적 출토유물 및 비교자료(정선운 2022)

(1, 46호 수혈, 2, 16호 주거지, 3, 5호 주거지, 4, 46호 수혈, 5, 5호 주거지 6, 2호 주거지, 7, 37호 주거지, 8, 23호 주거지, 9, 26호 주거지, 10, 37호 주거지, 11, 37호 주거지, 12, 2호 주거지, 13, 34호 주거지, 14, 37호 주거지, 15, 37호 주거지, 16, 패총 6pit, 17, 훈토패총 제4층, 18, 김해 대성동 2호, 19, 김해 대성동 9호, 20, 김해 대성동 1호, 21, 김해 양동리 9호, 22, 부산 북천동 54호, 23, 부산 북천동 54호)

래를 찾을 수 있는 왜래계 요소이다.

주변부로 넓히게 되면, 먼저 김해 관동리·신문리유적을 주목할 수 있다. 유적은 반룡산 남동사면 율하천 인근에 위치한다. 관동리유적 A~E 지구에서는 100여기의 지상식건물지 즉, 창고군이 확인되었으며, 금관가야 양식 토기와 함께 비화가야 양식 토기, 9·69호 수혈에서 須惠器가 출토되었다. 신문리유적은 관동리유적 동편에 위치한 생활유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정선운 2022). 유물은 금관가야 양식 토기와 함께 비화가야 양식 토기, 土師器系土器 반입·모방품이 다수 출토되었다.

古김해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형성된 진해 용원유적에서는 금관가야 양식 토기·철정과 土師器系土器, 마한양식의 시루와 저부편이 출토되어 부산 동래패총 출



[도면 5] 김해 일대 출토 須惠器

(1. 김해 여래리 25호 수혈(TK10), 2. 김해 여래리 45호 수혈(TK23), 3. 김해 관동리 2지구 9호 수혈(TK47), 4. 김해 관동리 4지구 69호 수혈(TK23))

토 마한양식 토기와 함께 주목할 수 있는 자료이다.

古김해만의 배후에 위치한 여래리·하계리유적에서는 철광석, 철재, 철괴, 송풍관편, 모루, 지석, 탄요 등이 출토되어 자체적인 철생산을 추정할 수 있는 유적이다. 이는 항시의 배후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래리유적 내 철소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 유구가, 퇴래리유적에서는 철제 제련을 위한 단야구가, 화정유적에서는 탄요가 확인되어 개연성을 높여준다. 특히 여래리 25·45호 수혈에서는 須惠器가 출토되었다.

2) 거제⁴⁾

거제도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 피난민들이 집중되며, 인구의 비약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이후 1971년 거제-통영을 잇는 거제대교가 건설되며 육지와 이어졌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두 곳의 대형 조선소를 필두로 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1999년 신거제대교와 2010년 거가대교의 건설로 육지와 다름없을 만큼의 육화(陸化)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호황기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으나, 2010년대부터 평택·당진 등으로 조선업의 중심이 이동하며 과거에 비해 비교적 쇠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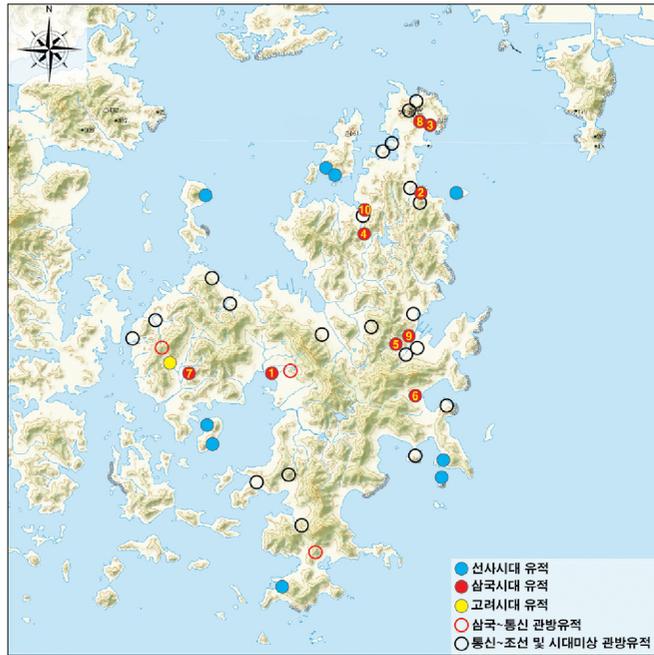
거제도는 2000~2010년을 전후하여 점진적으로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둔덕면의 둔덕기성(폐왕성)과 古군현치소(거림리유적), 방하리고분군, 거제면의 옥산성, 아주동의 아주동고분군, 아주동유적 등⁵⁾이 있다. 특히 최근 둔덕면의 방하리고분군의 발굴조사가 6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거제도 내 삼국시대 유적은 섬 전역에 산재하며 시기별로 성격이 뚜렷하게 달라

4) 본 내용은 필자의 논고(정선운 2025)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5) 현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삼국시대 고분군은 총 13개소이다(문화재청 2018).

진다. 3~4세기대는 거제 동부의 대금리유적에서는 청동기부터 삼국시대 목곽묘 23기·옹관묘 13기 등이 조사되었다. 단경호·파수부호·노형기대·고배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79호 목곽묘의 단경호는 전형적인 아라가야 양식으로 편년된다. 인근 농소유적에서는 상·하층의 삼국시대 문화층 속에 수혈·집석·집목·지상식건물지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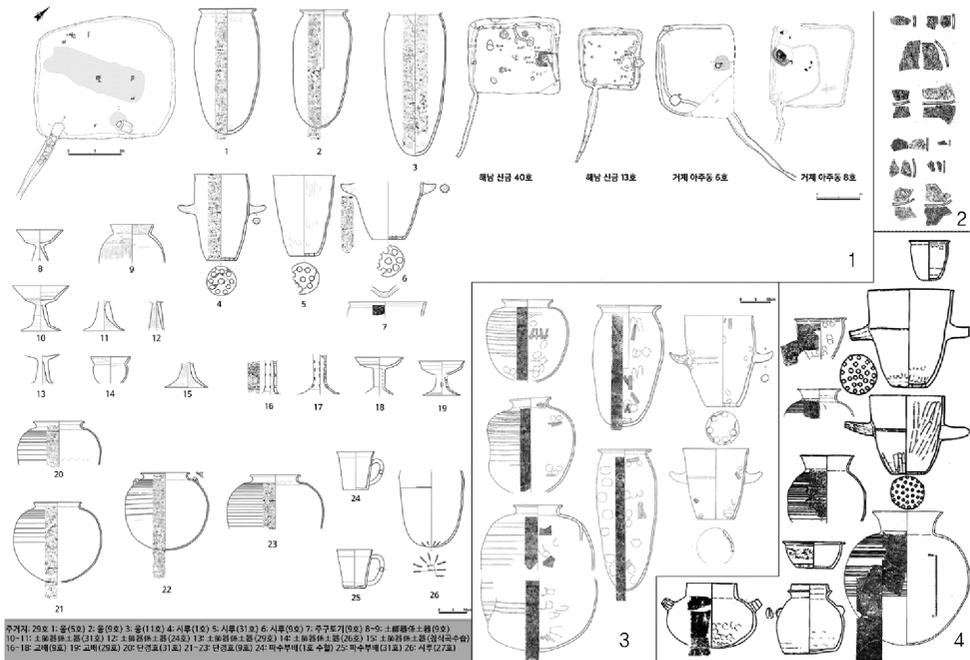


[도면 6] 거제도 유적 분포도(정선운 2025)

또한 연초 고개 일대의 도로공사 중 수습된 장터고개고분군에서는 단경호·고배·파수부배 등이 출토되었는데, 아라가야 양식 고배·단경호 및 소가야 양식의 파수부배가 확인되어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의 분묘군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거제도의 3~4세기 유적 중 가장 특징적인 아주동유적(1485유적, 1540-1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52기를 비롯한 수혈·지상건물지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 평면이 사주석을 갖춘 마한양식의 방형주거지이며, 아라가야 양식 단경호·고배, 마한 양식 밭·옹·시루, 土師器系土器가 대량 출토되어 재지 집단, 마한계 집단, 왜계 집단이 공존한 다국적 교역장의 성격을 보여준다. 반면, 아주동 남쪽의 소동리유적에서는 30기의 주거지와 수혈이 확인되는데, 단경호·고배·파수부배 등 아라가야 양식 토기가 중심이나, 아주동유적과 달리 土師器系土器를 비롯한 외래계 토기는 출토되지 않아 아주동유적의 상대적인 특수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5세기~6세기 전엽에는 방하리고분군이 대표적이다. 현재 6차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석곽 17기·석실 7기가 우선 보고되었다. 고배·수평구연호·발형기대·컵형토기 등 소가야 중심부인 고성 송학동·통영 남평리·마산 현동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기종이 다량 확인된다. 철부·철촉·철정·환두대도·철검 등 철기류도 출토되는데 특



[도면 7] 거제 아주동 출토유물 및 비교자료(정선운 2022,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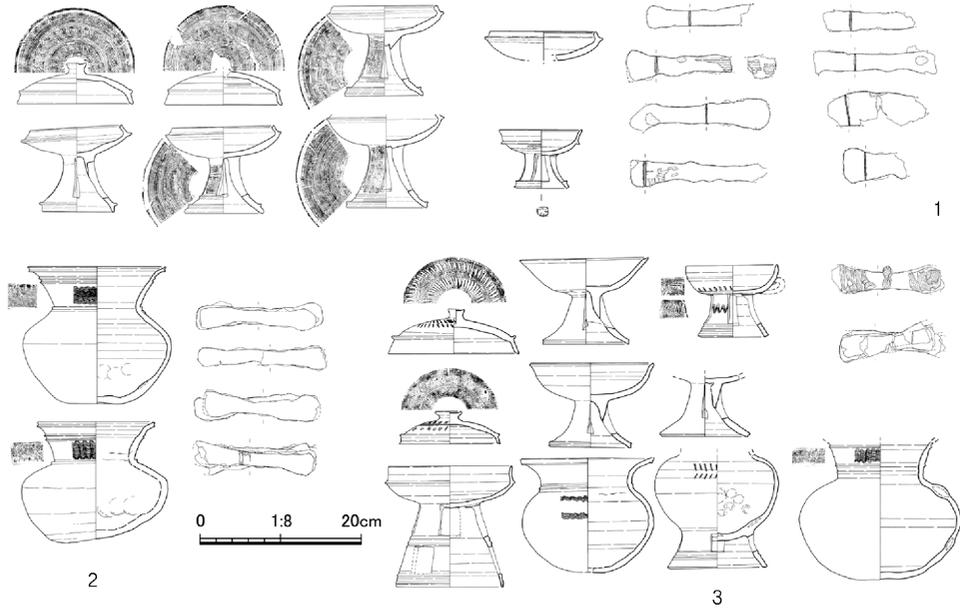
(1. 거제 아주동 유적, 2. 福岡県 三雲遺跡, 3. 해남 신금유적, 4. 福岡県 西新町遺跡)

히 철정의 경우 금관가야형이 아니라 단부와 신부 형태가 비대칭인 신라형 철정이다.

방하리고분군에서는 대호·단경호를 과쇄하여 시상을 조성하는 특징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성·통영·마산·진주 등 소가야 중심부에서 보이지 않는 양상으로 거제도의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6세기를 전후하여 거제 동북부 구릉 정상부에 단독으로 조영된 장목고분은 분구 외연에 하니와를 모방한 원형 토제품을 세우고 내부에는 길이 3.1m의 황혈식 제형석실과 나팔형 연도·현문시설이 설치된 전형적인 기타규슈형 석실이다(김준식 2019). 경갑·찰갑편·대도·삼지창·유리주 등이 출토되어 주목할 수 있다.

6세기 중엽 이후에는 신라의 남진과 함께 거제도 전역에 신라 문물이 집중·유입되며 둔덕기성과 옥산성, 다대산성 등 신라산성이 축조된다. 더불어 아주동고분군과 하청리유적, 그리고 방하리유적 등 고분에서 신라 양식의 황구·황혈식 석실이 조영된다. 하지만 아주동고분군 3·5호석실에서는 신라식 유개고배·대부완과 함께 대가야·소가야 양식의 개가 함께 매납되고 있어 신라양식 분묘 내에서 가야계 전통이 잔존하고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도면 8] 거제 방하리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철정 출토 분묘 공반유물(정선운 2025)
 (1. 거제 방하리 16호 석곽묘, 2. 통영 남평리 8호 목곽묘, 3. 통영 남평리 10호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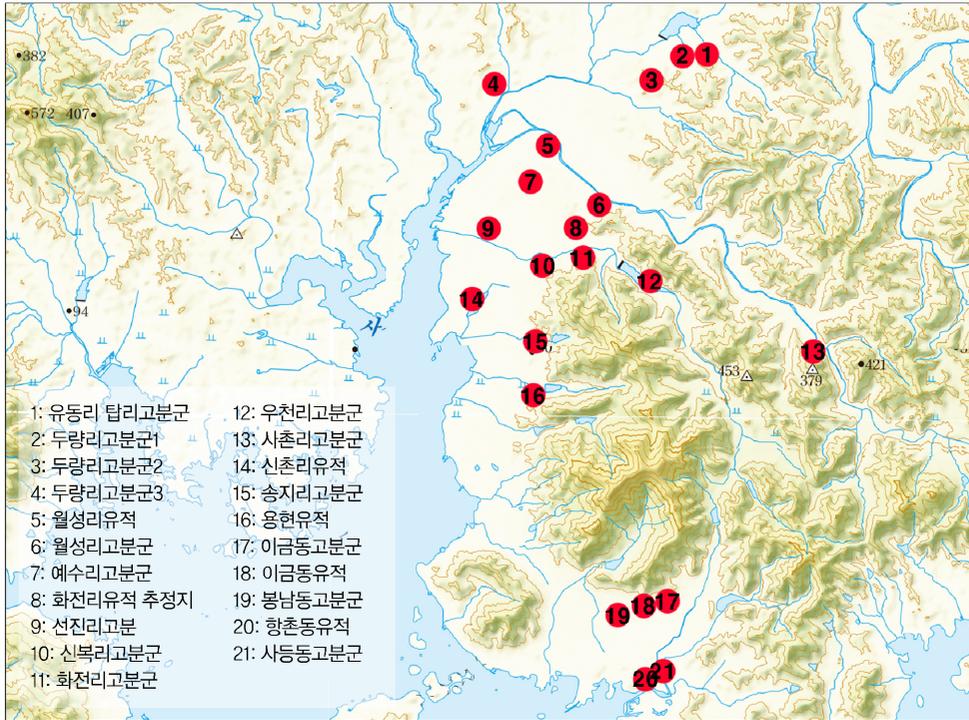
3) 사천

사천은 ‘史勿國’의 ‘故地’로 비정되고 있다. 하지만 사천 늑도의 사례를 빼면 학술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늑도는 사천을 대표하는 유적이지만, 과거 사천지역의 중심 또는 ‘사물’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기보다는 늑도를 중심으로 한 교역·교류·정체성에 대해 집중되고 있어 지역적 관점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하기엔 거리가 멀다.

다만 최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경남연구원 2022)가 개최되는 등 사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천지역을 ‘항시’의 개념에 대입한 견해(오재진 2022)가 있어 본 글을 통해 사천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을 정리하고, 그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천의 삼국시대 고분은 사천 선진리고분과 향촌동유적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송지리고분군, 예수리유적·고분군, 월성리유적·고분군, 이금동유적·고분군, 용현유적, 신촌리유적, 화전리유적, 봉계리유적 등이 있다.

생활유적으로는 월성리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봉계리유적(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예수리유적(삼도문화재연구원 2019) 등이 있으며, 유적 내 양상을 종합



[도면 9] 사천지역 삼국시대 유적 분포도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유적은 대부분 구릉과 그 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 평면형태는 원형·방형, 내부시설은 벽구·주혈·노지 등이 확인되어 서부 경남의 보편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출토유물의 수량은 많지 않으나 고배, 단경호, 파수부배(컵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소위 서부 경남 양식의 고배, 발, 시루 등을 중심으로 아라가야 양식의 단경호, 고배, 파수부배가 출토되었다. 연대는 3~4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고분유적은 금성리고분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부분 사천만의 동안 구릉 사면이나, 사천 중심부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선진리고분(김규운·김준식 2009), 월성리고분군(경상대학교 박물관 1998), 향촌동고분군(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송지리(정영호 1968; 경남문화재연구원 2024)·예수리(삼도문화재연구원 2019)·이금동고분군(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등 중·소형분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목곽묘는 월성리고분군·월성리유적 등에서 조사되었지만, 수량이 많지 않다.

석곽묘는 예수리고분군·송지리고분군·용현유적을 포함한 다수의 분묘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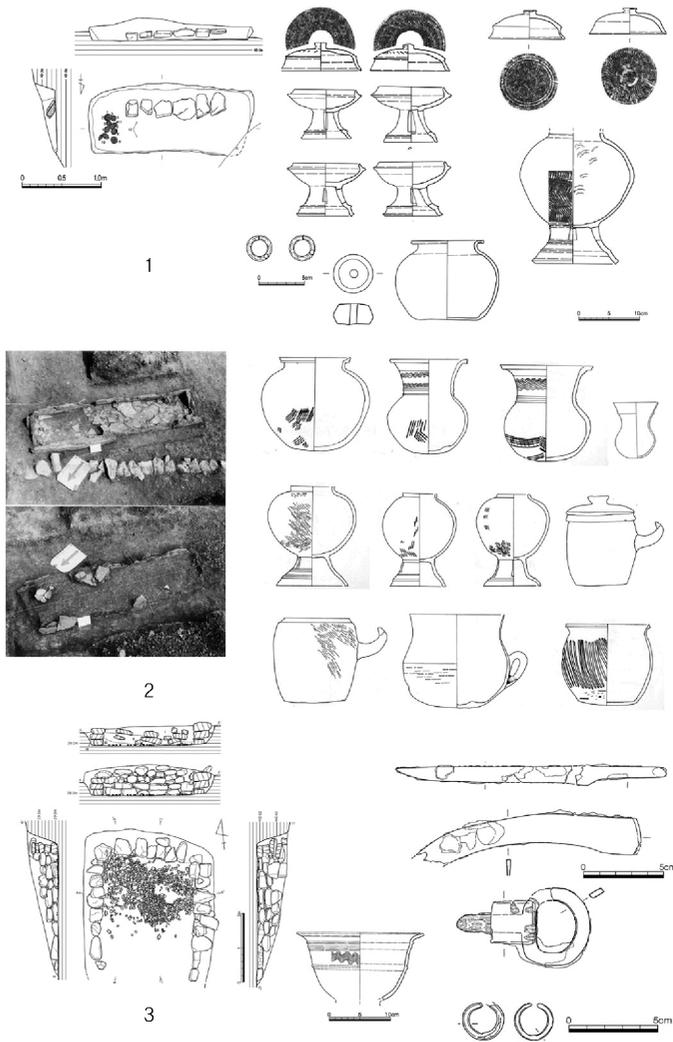
확인되고 있어 일괄적으로 통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 평면형태 세장방형의 판석·할석을 조립한 형태이다. 유물은 수평 구연장경호, 고배, 개, 단경호 등이 출토되는 양상이다.

석실은 월성리·이금동고분군에서 횡구식석실이, 이를 제외하면 모두 횡혈식석실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이며 유물은 고배, 개, 단경호, 수평 구연호 등이 출토되었다. 횡혈식석실은 선진리·향촌동·월성리 고분군 등에 분포하고 있다. 선진리고분은 단독으로 축조되어 있는 점이 특징으로 현문시설을 갖추고 있고, 석

실은 대형의 벽석으로 축조되어 있다. 향촌동고분군에서는 Ⅱ-1호분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현문시설을 갖추고 ‘ㄷ’자로 배치된 석장형 석관이 설치되어 있다. 월성리고분군은 평면형태 방형의 석실으로, 호석이 둘러진 점이 특징이다.

4) 왜계고분

김해 율하 B-1호, 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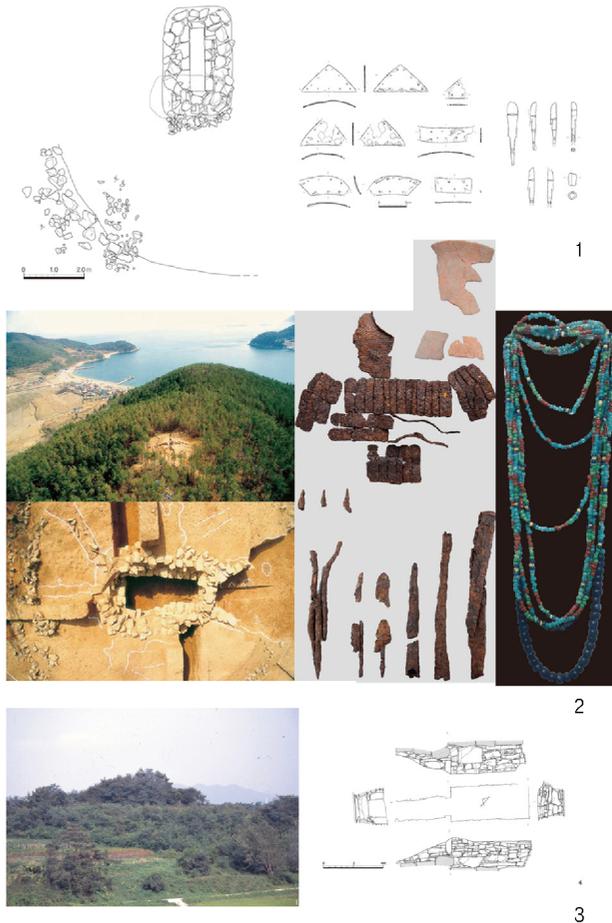


[도면 10] 사천지역 분묘 및 출토유물

(1. 사천 예수리 1호 석곽(삼도문화재연구원 2019), 2. 사천 송지리 10(上)·11(下) 석곽(단국대 석주선박물관 1999), 3. 사천 용현유적 1호 석실(上)(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김해 율하 B-1호는 관동리·신문리유적에서 남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해발 약 15m의 구릉 정상부에 배장묘로 판단되는 2호와 함께 축조되어 있다. 5세기대에는 구릉에서 관동리·신문리유적이 육안으로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매장주체부는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수혈식석곽과 축조기법과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의 형태는 석관계수혈식석실이며, 유물은 삼각판혁철관갑편·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적의 연대는 5세기 전반이며, 피장자는 日本九州와 관련 있는 왜인으로 생각된다(정선운 2022). 5세기 전·중엽 남해안에 축조된 전남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야막고분, 해남 외도고분, 신안 배널리 고분, 천안 구도리 고분 등 서남해안 일대에 축조된 왜계 고분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김낙중 2013).

거제 장목고분(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은 거제도 북·동부 해발 약 83m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현재 농소터널이 개통되어 있는 바로 위이다. 분구는 직경 약 18m, 높이 약 3m이며 분구 외면에는 층석이 확인된다. 분구 가장자리에는 하니와를 본뜬 토제품이 수립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길이 3.1m, 폭 1.8m, 높이 2.12m의 양수식의 횡혈식석실이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경갑, 유리주, 대도, 삼지창 등이 출토되었고, 현문부 주위에서 찰갑편이 흩어진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의 평



[도면 11] 가야권 남해안 왜계고분

(1. 김해 율하 B-1호(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2. 거제 장목고분(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3. 사천 선진리고분(김규운·김준식 2010))

면형태는 제형이고, 후벽 하단에 대형 석재를 사용한 요석,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연도, 현문시설의 존재 등이 특징이다.

사천 선진리고분은 정식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표 및 석실내부 조사 자료가 보고되었다(朴天秀 2003; 김규운·김준식 2010). 사천만에서 약 400m 떨어져 있는 구릉 정상부에 단독으로 입지한다. 분구는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없으나 직경 30m, 높이 5m이며, 연도는 양수식으로 현문시설이 구비된 횡혈식석실이다.

2. ‘港市國家論’의 적용

1) 古김해만

古김해만의 금관가야는 고대 남해안 해역체계에서 단순한 교역항을 넘어선 항시국가(港市國家)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집약적이고 구체적인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로 생각된다. 김해의 중심지와 주변부는 자연지리·교역·배후지·외래계 요소 등과 위계성 등이 중첩된 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 구조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서부에서 논의된 항시국가의 특징과 완전히 대응하고 있다.

먼저 김해평야는 과거 현재보다 훨씬 넓은 내만을 이루었던 古김해만을 배경으로 성장했는데, 간조 시에는 갯벌과 갯강이 형성되어 내륙과 만 입구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해상-갯강-하천-고지대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즉, 해상 접근과 내륙 교통로의 복합성(生田滋 1966)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古김해만의 중심지인 봉황토성·대성동고분군·부원동유적·가야인 생활체험촌유적은 생활·분묘·교역유적이 한 곳에서 결절되는 결합형 중심지(combined capital)로 이해할 수 있다. 봉황토성에서는 패각·모래·점토·목탄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성토 공법, 목주열·수평성토·교호성토 등 다양한 토목기술이 확인되었는데(김수민 2025), 성토층 하부에서 확인된 목기·칠기, 상층에서의 대형 건물지 밀집은 이 공간이 장기간에 걸쳐 권력 중심지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해반천과 봉황토성 사이에서 출토된 선재 및 노는 이곳이 선박의 정박·접안을 가능하게 하는 하천 결합형 항만 구조임을 보여준다(동양문화연구원 2014). 이러한 ‘수로 결합형 내륙 항만’은 인도양 항시국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도시-수로(해운) 연결 구조’와 동일하다(家島彦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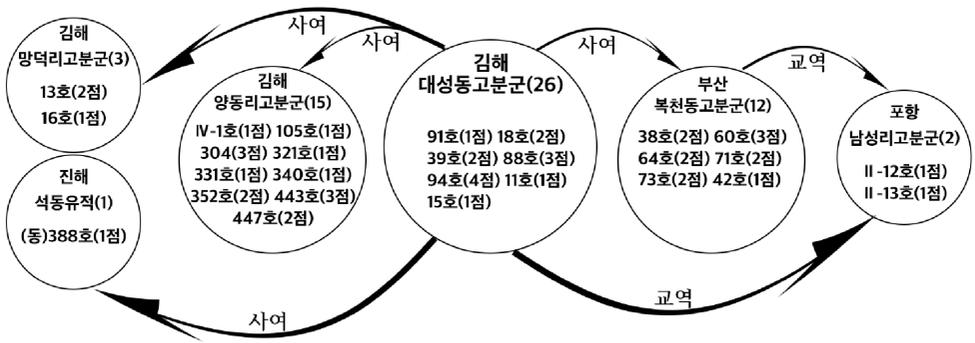
특히 대성동고분군은 김해가 단순한 교역의 이동지점을 넘어 정치·의례·경제

기능이 맞물린 항시국가적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중국 동북·일본열도를 비롯한 諸 가야 정치체들과의 교역 관계를 의미한다. 앞 장에서 전술한 다양한 외래계 요소의 집중은 경제적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의례·사회규범이 결합된 제도적 교역의 장(institutionalized port of trade)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Karl Polanyi 1963).

특히 대성동고분군 집단이 교역의 통제나 재분배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지표의 대표적인 사례는 금관가야권 내 통형동기의 분포에서 찾을 수 있다. 통형동기는 금관가야와 일본열도의 관계를 내포하는 고고자료이다. 제작 주체에 대한 견해는 나뉘고 있으나, 한반도 내 분포 수량으로 보았을 때 금관가야의 중앙을 통해 주변으로 사여·교역된 물품임이 분명하다. 즉, 통형동기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중심 집단의 교역 또는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정치권력 개입의 일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도면 12).

김해 주변부의 성격 또한 항시국가론적 구조를 입증한다. 관동리·신문리유적에서 대규모 지상식건물군(창고군)의 존재는 교역 물품 집산·저장 기능의 제도화 가능성을 내포한다(坂井隆 2002). 더불어 土師器系土器나 須惠器의 반입·모방 사례는 일본열도 제 집단의 왕래와 장기 거주를 보여준다. 용원유적은 古김해만 입구에 위치하여 외해-내해를 연결하는 외항으로, ‘동심형 항만권력 구조Concentric port polity’(Kathirithamby-Wells & Villiers 1990; 최경규 2025)가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배후지 또한 항시국가 구조를 뚜렷하게 형성했다. 여래리·하계리 등지의 배후지는 자원 생산과 내륙 연결로를 담당함으로써(家島彦一 2006) 배후지-외항-중심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Mandala polity의 핵심 개념인 복수 중심성(multi-centric



[도면 12] 금관가야권 통형동기 분포 모식도(정선운 2022)

domain)을 참고할 때 다중 권역이 상호 연결된 연성 정치체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O. W. Wolters 1999).

결론적으로 김해 지역은 다수의 항시 구조가 결합된 복합체로서 단순한 해양도시가 아니라 낙동강과 남해안을 통해 내륙과 바다 그리고 일본열도를 잇는 교역체계를 중재하는 고대 항시국가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2) 거제

거제도도 고대 남해안 해역체계 속에서 독자적인 정치권력을 형성하거나 외항(外港)을 구축한 항시국가 구조를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도서 내 아주동유적은 다양한 외래계 집단이 공존하고 다문화적 물질문화가 축적되는 양상을 통해 중계적 교역장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아주동유적의 성격은 ‘교역장’의 특징과 정확히 대응한다. 유적은 아라가야·마한·왜계 등 다양한 외래계 요소와 함께 재지계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 항시의 발전을 ‘교역장 → 항시 → 항시국가’로 설정했는데, 이 중 교역장 단계의 특성, 즉 다문화상인집단의 접촉·왕래가 집중되며 정치권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단계에 부합한다(生田滋 1966).

특히 항시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거점적 취락’이 출현하며, 여기에는 외래 집단의 상주·혼주·수공업의 재맥락화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러한 ‘교역거점’의 속성을 매우 잘 보여준다(家島彦一 2006).

또한 거제의 지리적 입지는 남해안과 일본열도를 잇는 연안항로의 결절점에 해당한다(정선운 2024, 2025). 남해안에서 일본열도로 향하는 항로의 중심지에 위치한 거제는 교역장으로 기능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즉, ‘항로의 결절점’ 개념과 일치하며, 동남아 항로 인식에서도 중간 정박지의 역할이 강조된 구조와 흡사하다(生田滋 1966).

즉, 거제도도 항시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중심성을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주동유적은 연안항로의 교역체계에서 교역장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바텐(Banten)의 사례에서 정치 중심(수도)과 외항(항시), 그리고 그 주변의 부속 교역거점들이 네트워크 관계로 존재하며, 이러한 중계적 결절점이 없으면 항시국가 전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坂井隆 2002). 이는 단순히 지리적 중간지대가 아니라, 중심 항시의 교역량·상품 순환·물자 집산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구성요

소로 아주동유적의 성격은 동남아시아 ‘교역 전초지’와 유사한 성격일 것으로 생각된다.

3) 사천

사천은 고대 남해안 해역체계 속에서 일정한 교역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나, 김해·거제와는 달리 항시 혹은 항시국가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구성단위로 보기 어려운 고고학적·지리적 특징을 보인다. 특히 다양한 외래계 요소는 선진리·향촌동Ⅱ-1호 고분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천은 항시국가론적 틀보다는 지역적 생활권과 재지 집단 중심의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사천을 항시 개념에 적용하여(오재진 2022), 사천·사물국의 정체성을 더욱 능동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외래계 요소의 집중이나 이주집단의 흔적이 현저하지 않다. 특히 5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남해안 일대에는 소가야 양식 토기가 광역망을 이루고 있기(박천수 2018) 때문에, 소가야 양식 토기와 분묘가 확인되는 양상은 재지계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왜계고분을 통해 볼 때 남해안 교역체계 속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항시국가론 속에서의 교역장·항시·항시국가와 같은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4) 왜계고분

왜계고분을 검토하기에 앞서 기술한 ‘항진(港津)’이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항진이라는 개념은 ‘아라타메조리유적(荒田目条里遺跡)’에서 출토된 목간에 기록되어 있는 ‘진장(津長)’의 성격을 파악하며 제기되었다(日高慎外 2024).

목간은 일본열도 동북지방 후쿠시마현 남동부에 위치한 이와키시(いわき市) 구하도 조사에서 발견되었



[도면 13] 荒田目条里遺跡유적 출토 목간

다. 유적의 연대는 헤이안시대 9~10세기로 추정된다. 총 6점이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한점에서 「郡符立屋津長伴→福磨可○召○右為客料充遣召如件長宣承○」이라는 구절이 확인되었다. 내용은 郡符立屋의 항구 책임자인 '伴部'의 '福磨'에게 객료를 충당하기 위한 사람의 소환을 명령한 것이다(いわき市教育文化事業団 2001).

이를 근거로 '津(나루)'의 개념을 고고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港'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일본열도의 고대 해상 교통 구조를 설명할 수 있었다. 나루(津)·포구(浦)·정박지(碇泊地) 등 기존 용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해상 교통 구조의 다양성과 기능적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日高慎外 2024).

'港津'의 개념을 더 살펴보자면, 항진은 해상 교역망을 구성하는 소규모 해양 거점으로서, 장거리 항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박이 정박하고 보급하며 항로를 정비하기 위해 선택된 자연적 포구이다. 이는 항시 또는 교역장과 같은 외래계 요소의 집적보다, 항해 기술·지형 조건·해류·풍향 등 해상 환경적 요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교역적 목적보다 항해 유지 자체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항진'을 고대 일본열도의 도서·내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항로 운영의 실질적 단위'로 규정하며, 항해 집단이 장·단기적으로 정박하고 물자를 보급하며 기초적 교환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었다고 설명한다(日高慎外 2024). 따라서 항진은 교역보다는 항로 운영을 위한 기능적 거점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며,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항로 연속성을 담보하는 기초적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또한 항진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항시의 전 단계 혹은 하위 단계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교역장의 발생 조건 중 일부를 공유하나(生田滋 1966; 정선운 2022), 다양한 외래계 요소의 집적을 수반하는 교역장·항시와는 구별된다. 항진에서는 소규모의 문화 접촉이나 교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항시에서 나타나는 문화 집적이나 정치권력의 개입과는 다른 성격의 '비제도적·비시장적 교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항진은 중심 항시와 배후지, 그리고 교역장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하위 구성요소로 기능하며, 항시국가의 구조(배후지, 교역장, 항시)가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작은 결절점'을 형성한다(家島彦一 2006). 항진은 이 구조 속에서 선박이 장거리 항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시국가 전체의 교역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결국 항진은 항시국가의 경제·정치 구조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지만, 그 교역망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실질적 운영 기반이라

는 점에서 교역장·항시·항시국가를 연결하는 필수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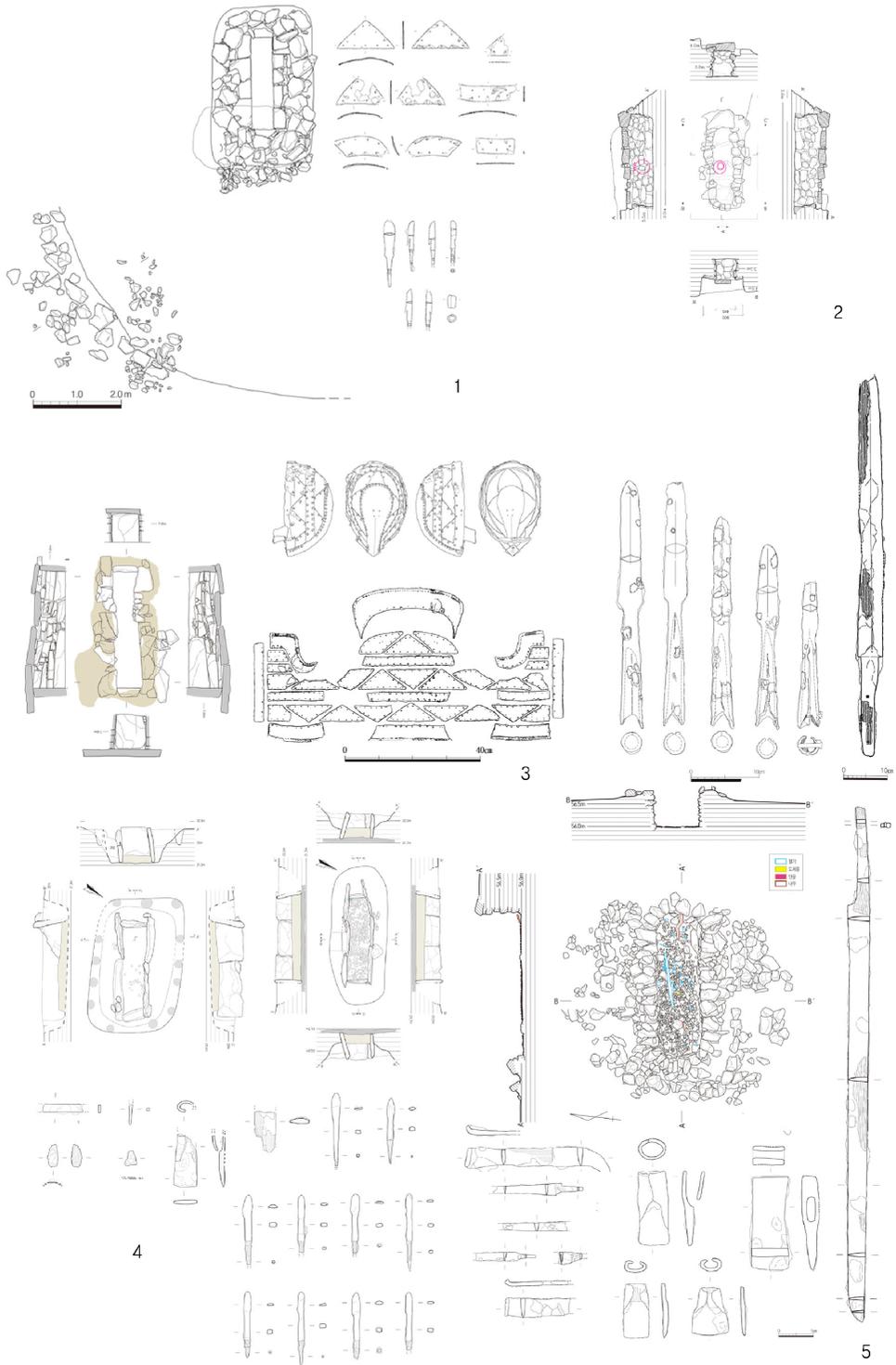
즉, 항진은 고훈시대 해상 교통에서 배가 정기적으로 머물며 휴식·보급·피항을 위해 이용하던 자연 항만 또는 하구·내만의 기항지이며, 이를 관리하는 ‘津長’의 존재가 추정할 수 있다. 즉, 내만, 석호, 하구 등 파랑이 약하고 배가 닿기 쉬운 지형에 형성되거나, 멀리서 인지하기 쉬운 산·고층 등 시인성이 높은 지형 요소와 결합한 항해의 안전을 보장한 공간인 것이다. 즉, 이는 ‘항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기항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정선운 2022, 2023ab, 2024)

이를 근거로 왜계고분의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방후원분을 중심으로 다룬 선행연구(김낙중 2013; 김준식 2019; 조영제 2004; 박천수 2007; 박상언 2010; 이주현 2020; 홍보식 2011 등)를 참고하자면, 피장자의 출자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으나, 그 목적으로는 대부분 ‘교역·교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필자 또한 이에 수긍하나, 앞서 살펴본 ‘항진’이라는 개념에 적용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5세기 전엽의 김해 읍하 B-1호와 같은 석관계수혈식석곽은 동일 시기의 대성동 73호 수혈식석곽과 비교할 때, 매장주체부의 축조 방식, 출토 유물의 조합, 단독 입지와 묘제 등 거의 모든 요소에서 차이가 있다(정선운 2022). 이러한 특수성이 김해 읍하 일대의 제지계 전통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에서, 인근 교역·해양 활동과 연계된 외래 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고분이 김해뿐 아니라 해남 외도고분, 신안 배널리 3호, 무안 신기고분, 고흥 안동·야막고분, 그리고 최근 조사된 청산도 당리고분 등 반도·도서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반복적으로 단독 출현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고분들이 단순한 지역적 이동이 아니라 항로를 따라 형성된 거점에서의 기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임을 보여준다.

항진(港津)은 본래 장거리 항해 과정에서 선박이 정박하고 보급하며 항로를 재조정하기 위해 선택된 자연적 포구 혹은 중간 기항지를 의미함을 확인했다. 이 공간에는 항해 집단이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시적으로 거주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교역·정치·의례 기능이 복합된 항시와 달리 이동·정박·보급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과도기적 공간으로 평가된다(生田滋 1966; 家島彦一 2006; 日高慎外 2024). 이러한 항진의 기능을 고려하면, 도서 해안 일대에서 확인되는 왜계고분들은 정박·기항 활동을 전개하던 외래 집단이 일정 기간 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집단의 흔적, 혹은 기항지의 군사·교역 담당 집단의 표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목되는 것은 이 고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 조합이다. 도굴로 인해



[도면 14] 5세기 전엽 왜계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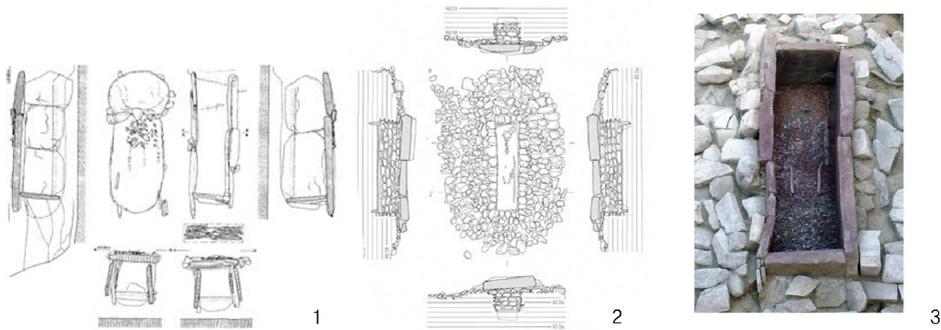
(1. 김해 율하 B-1호(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2. 무안 신기고분(목포대학교 박물관 2011), 3. 신안 배널리 3호(동신대학교 박물관 2015), 4. 청산도 당리고분(호남문화재연구원 2025), 5. 해남 외도고분(마한문화연구원 2025))

대부분이 유실된 해남 외도고분⁶⁾과 무안 신기고분을 제외하고는 대도·철축 등 무기류를 중점적으로 삼각관혁철관갑·장방형관혁철관갑 등 북부 규슈계 갑주가 출토되기도 한다. 이는 해당 고분을 축조한 피장자(또는 집단)가 음식물을 봉헌과 함께 토기를 매납하던 재지계 매장례와 다른 관념을 지녔음을 보여주며, 피장자와 그 집단의 군사적 성격을 내포하는 자료이다.

이와 함께 문헌사료를 살펴보자면 『日本書紀』응신16년(405)조 기사에서는 직지왕(전지왕)이 왜에 9년 동안 파견·체류된 사실과 『三國史記』백제본기 전지왕 원년(405) 기록에서는 아신왕이 사망하지 전지의 환국을 호위하는 왜군의 존재가 확인·가능하다. 또한 『日本書紀』응신16년(405)조 ‘平群木菟宿禰.的戶田宿禰를 가라에 파견하여 신라를 치고 습진언과 궁월군의 인부를 데리고 오도록한다’는 기사를 참고할 때 이 시기를 전후하여 왜군이 가야·백제권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北部九州 福岡県 奴山正園古墳·七夕池古墳·川津古墳 등에서 확인되는 석곽의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부 규슈와 가야·백제 연안을 잇는 거점에 배치된 군사 집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항진의 기능상, 장거리 향해 집단은 주요 기항지에서 항해자·교역자·무사 집단이 함께 이동하거나 혼합된 형태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데(日高慎外 2024), 전술한 5세기 전~중엽 왜계고분의 성격은 바로 그러한 구조와 일치한다.

6세기를 전후하여 축조된 거제 장목고분과 사천 선진리고분 역시 동일한 틀로 해석할 수 있다. 장목고분은 ‘八’자형 연도, 요석 배치, 현문시설, 철모·삼지창, 분구 외



[도면 15] 5세기 전반 왜계고분 비교자료

(1. 福岡県 奴山正園古墳, 2. 福岡県 七夕池古墳 1号墳, 3. 飯塚市 川津 1号墳)

6) 해남 외도고분에서는 과거 지표조사 당시 철제편, 동경편이 수습되었다는 주민들의 진언이 있었으나 현재 확인할 수 없다(목포대학교 박물관 1986)

연의 하니와 토제품 등 北部九州 番塚古墳·關行丸古墳과 동일 계통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사천 선진리고분 또한 현문시설과 요석의 구성에 있어 北部九州 계열의 묘제 양식을 갖추고 있다(김준식 2019). 이는 양 고분이 위치한 거제 농소만·사천만 일대가 장거리 항해 집단의 중간 교역·정박의 기능을 수행했던 지점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분의 존재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5세기 말~6세기 초 거제·사천지역이 항시 단계의 교역·정치적 집중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장목고분·선진리고분을 중심으로 한 항진 즉 기항지로 기능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해안 일대에 산재하는 왜계고분들은 기존의 재지계 매장의례로 설명되지 않는 외래 집단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들의 분포는 곧 항진(기항지)의 분포 즉, 연안항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을 기항지가 물질자료로써 확인되는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 가야 연구에서 확산되고 있는 ‘항시(港市)’와 ‘항시국가(港市國家)’ 개념의 사용이 개념적 정의보다 사례 적용이 앞서는 경향을 보인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했다.

국내 연구사에서 항시는 해안에 위치한다는 입지나 일부 외래계 요소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항지-교역장-항시-항시국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항시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항시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해상·수운·육로가 교차하는 ‘교역의 결절점’으로서 기능한다. 둘째, 교역의 안전성과 중립성은 정치체의 개입을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항시는 정치·경제·의례가 결합된 제도적 교역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래계 요소의 집중과 상호작용은 항시가 단순한 시장을 넘어 ‘교의 장’임을 의미한다. 넷째, 항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지-교역장-외항-중심 항시가 네트워크를 이루며, 그 통합적 구조 속에서 항시국가가 성립한다.

이론적 틀을 가야권에 적용한 결과,古김해만·거제·사천은 동일한 ‘항시’ 범주에 넣기 어려운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보였다.古김해만의 경우 중심지-외항-배후

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교역체계가 확인되며 다양한 외래계 요소가 집중되어 있어 항시국가론이 제시하는 조건과 가장 부합했다. 다시 말해, 古김해만은 내륙-남해안-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계 거점이자 정치·의례·경제 기능이 집약된 항시국가의 전형적 구조를 갖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거제는 도내 諸유적과 달리 아주동유적에 외래계 요소가 집중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론적 틀에 근거한 ‘교역장’으로서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항시국가 내부의 중간 거점, 곧 교역장의 성격과 정확히 대응한다.

사천의 경우 선진리·향촌동 II-1호분을 제외하면 외래계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선진리·향촌동 고분에 제한적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현재로써는 항시로 이해하기엔 자료가 미흡하다.

김해 율하 B-1호, 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은 ‘항진’의 개념과 문헌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피장자는 ‘교역’과 관련된 인물일 것이나 ‘교역장’이나 ‘항시’ 단계엔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왜계고분을 중심으로 ‘기항지(항진)’의 개념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어느 지역을 ‘港市’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정합성을 충족하는 조건, 즉 입지와 외래계 요소의 집중, 교역을 관리하는 정치체, 그리고 배후지·외항과 연동된 네트워크 구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12. 31 | 심사완료일 2026. 1. 26 | 게재확정일 2026. 2. 2

참고문헌

- 강귀형, 2023, 「해남 군곡리 유적의 조사 내용과 의미」, 『해남 군곡리 유적으로 본 고대 향시와 신미국』, 목포대학교박물관.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사천 봉계리 삼국시대 취락』.
- _____, 2003, 『사천 이금동유적』.
- 경남문화재연구원, 2024, 『사천 송지리유적』.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거제 장목고분』.
- _____, 2008 『김해 율하리유적 I』.
- 경남연구원, 2022,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 경상대학교 박물관, 1998, 『사천 월성리고분군』.
- 권오영, 2017, 「랑야수국(狼牙脩國)과 해남제국(海南諸國)의 세계」, 『백제학보』20, 백제학회.
- _____, 2019, 『해양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세창출판사.
- _____, 2023, 「고대 동아시아의 향시와 향시국가」, 『해양과 메가아시아』, 진인진.
- 권옥택, 2022, 「마한 신미국의 경제사: 외래유물을 통해 본 해상교역과 향시」,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대한문화재연구원.
- 권혁재, 2003, 『한국지리』, 범문사.
- 김규운·김준식, 2010, 「사천 선진리 석실분」, 『영남고고학보』48, 영남고고학회.
- 김낙중, 2013, 「5-6세기 남해안 지역 왜계고분의 특성과 의미」, 『호남고고학보』45, 호남고고학회.
- 김수민, 2025, 「2024년 영남지역 분묘 의 발굴성과」, 『2024년도 조사연구사례발표 학술대회』, 가야사학회.
- 김준식, 2019, 「가야 황혈석실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11, 『사천 용현유적』.
- _____, 2025, 『가야 향시와 일본 열도-창원 석동유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專修大學 학술교류협정체결 10주년 기념 합동 학술심포지엄.
- 동양문화연구원, 2014, 『김해 봉황동유적』.
- 村松 伸, 2003, 「아시아 도시의 씩없는 변천」, 『바다의 아시아1-바다의 페러다임』, 다리미디어.
- 목포대학교 박물관, 1986, 『해남군의 문화유적』.
- _____, 2023, 『해남 군곡리 유적으로 본 고대 향시와 신미국』.
- 문화재청, 2018, 『2018년도 전국 비지정 고분군 실태조사 보고서』4.
- 박상언, 2010, 「가야 지역 왜계고분의 연구 현황과 과제」,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 _____, 2018, 『加耶文明史』, 진인진.
- 삼도문화재연구원, 2019, 『사천 예수리 산 64번지 유적』.
- 안홍좌, 2023, 「탁순국의 성격」, 『한국학연구』8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오재진, 2022, 「삼국시대 사천의 고고학적 상상」,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경남연구원.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사천 월성리유적』.
- _____, 2011, 『사천 향촌동 유적』.
- 윤영석, 2025, 「교역장과 기항지로 본 남해안~영남권역 초기 향시의 철부유통망 연구」, 『야외고고학』52, 한국문화유산협회.
- 이동희, 2018, 「해남반도와 가야 신라의 교류 그리고 향시국가 지미」, 『백제학보』26, 백제학회.
- _____, 2021, 「고성 내산리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 『영남고고학』91, 영남고고학회.

- 이주현, 2020, 「나주 정촌고분 1호 피장자의 성격 재검토」, 『중앙고고연구』32,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정문수 외, 2014, 『해항도시 문화교섭 연구 방법론』, 선인.
- 정선운, 2022, 「加耶 港市の 成立과 展開」,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23a, 「가야지역 외래계 거주집단 연구」, 『가야사연구』2, 가야사학회.
- _____, 2023b, 「고고자료를 통해 본 가耶의 港市國家論」, 『한국고고학보』129,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4, 「고고자료를 통해 본 가야의 연안항로-항시국가론을 중심으로-」, 『도서문화』64, 목포대학교 도서관학연구원.
- _____, 2025, 「삼국시대 거제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130, 한국상고사학회.
- 정영호, 1968, 「사천 송지리 석상식고분군 발굴조사개요」, 『미술사학연구』98, 한국미술사학회.
- 조영제, 2004, 「古家墳 築造에서 보이는 왜계고분의 要素」, 『제10회 가야사국제학술대회』, 김해시.
- 川口洋平·村尾進, 2013, 「항시사회론-나가사키의 광주-」, 『해역아시아사연구』입문, 민속원.
- 최경규, 2025, 「加耶의 港市와 昌原 石洞遺蹟-金官加耶의 港市國家 體制와 昌原 石洞遺蹟의 外港的 位相」,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專修大學 학술교류협정체결 10주년 기념 합동 학술심포지엄』,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 황상일 외, 2009, 「고김해만 북서지역의 Holocene 후기 환경변화와 지형발달」, 『한국지형학회지』16, 4, 한국지형학회.
- 홍보식, 2011,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 일문 -

- 菊池誠一·坂井隆 外, 2021, 『港市·交流·陶磁器-東南アジア考古学研究』, 菊池誠一先生·坂井隆先生退職記念論文集, 株式会社雄山閣.
- 高田貴太, 2018, 「5, 6世紀朝鮮半島西南部における「倭系古墳」の造営背景」,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11,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_____, 2019, 「5世紀の朝鮮半島西南部における竪穴式石室・竪穴系横口式石室の構造」,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17,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大林太良, 1987, 『海をこえての交流』, 中央公論社.
- 朴天秀, 2003, 「榮山江流域と加耶における倭系古墳の出現過程とその背景」, 『熊本古墳研究』1.
- 生田滋, 1966, 『東方諸国記』大航海時代叢書5.
- 石井米雄·辛島昇·和田久徳, 1992, 『東南アジア世界の歴史的位相』, 東京大学出版会.
- 坂井隆, 2002, 『港市国家・バンテンと陶磁貿易』, 同成社.
- 家島彦一, 2006, 『海域から見た歴史-インド洋と地中海を結ぶ交流史-』, 名古屋大学出版会.
- 日高慎 外, 2024, 『古墳時代の交通と流通』,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いわき市教育文化事業団, 2001, 『荒田目条里遺跡』いわき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75, いわき市教育委員会.

- 영문 -

- Karl Polanyi, 1963, Ports of Trade in Early Societie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3.
- Kathiritamby-Wells.J.·Villier, John, des, 1990, *The Southeast Asian Port and Polity: Rise and Demise*. Kuala Lumpur OUP.
- O. W. Wolters, 1999, *History, Culture, and Re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Cornell University Press,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at Cornell University.

A Theoretical Review of Port City Theory and Port Markets in Gaya

Jeong, Seon-Woon(Ph.D. Student,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observation that, in recent research on Gaya history and maritime exchang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concept of port market (港市) has been widely applied in advance of a clear theoretical definition.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define port markets primarily on the basis of locational conditions or the presence of a limited range of foreign-origin artifacts, while lacking systematic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al stages—from anchorage to trading place, port market, and port-polity—as well as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port markets themselves.

In response, this paper reviews the accumulated discussions of Port-Polity Theory (港市國家論) derived from case studies in Southeast Asia, the Indian Ocean,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reorganizes the concept, structure,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the port market. The core ele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 nodal location linking maritime routes, waterways, and inland regions; (2) the concentration of foreign-origin materials and multidirectional cultural interactions; (3) a political authority that organizes and controls exchange; and (4) a port network structure integrating trading places, port markets, and their hinterlands.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leo-Gimhae Bay, Geoje Island, and Sacheon within the Gaya region demonstrates clear differentiation. The Paleo-Gimhae Bay exhibits a systematic integration of central

place, outer port, and hinterland, alongside a dense accumulation of foreign elements, closely corresponding to the structure of a port polity. In contrast, the Ajou-dong site on Geoje Island shows diverse foreign influences but lacks political centrality, and is therefore best understood as a trading place. The Sacheon area reveals evidence of limited exchange activities, yet the scarcity of foreign elements makes it insufficient, at present, to be interpreted as a port market.

By reexamining the concept of Port-Polity Theory and presenting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theory with material cultu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irmer conceptual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maritime exchange through the lens of port-polity studies.

Key words : Port Node, Port of Call, Trading Place, Port City, Port City Theory